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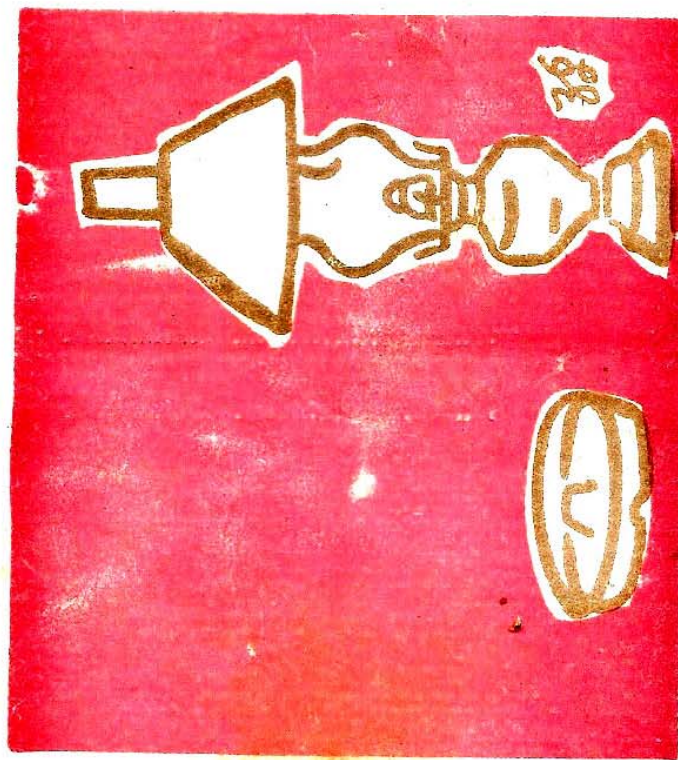
科学出版社

科学出版社



心火

著者 芥村



版社学文リウ

한글 校正 金 炳 濟
 裝 幀 向 破

머 리 사 말

詩를 배우기 시작한지도 이즈뚱 二十餘年이 되었다。

그동안 발표한것만 모아도 數百篇 될것이나 아직 이렇다 할 자신 있는 작품을 쓰지 못하였고, 또한 그동안 여러번 이사하고 두어번 집의 주소를 당하는 중에 原稿는 어디서 없어졌는지 찾을 길이 없고 한편 문학의 日本化의 운동을 한다고 떠들던 十年 가까이 蟄伏하여 絕筆하였던 관계로 선택도 못하고 수집 되는대로 近作 몇편을 더하여 빈약한 이책을 꾸미었다。

이 拙著 『心火』가 우리 詩壇에 함께 조그마한 掄石이나마 된다면 望外의 幸이려니와 實인즉 이 한卷으로 지대간 날을 청산하고, 앞날의 詩

擅 朝鮮을 위하여 끝까지 前進할것을 약속할 따름이다。
 끝으로 이 詩集이 세상에 나오도록 주선하여 주신 畏友 洪九兄과 한
 글 校正을 보아 주신 金炳濟先生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바이다。

丙 戌 歲 首

於 鷲 峰 山 下

著

者

(2)

次 例

머 리 사 말	1
第 一 部	
蠶 心 火 伏	五
心 火	八
의	10
노 들 강	11
들 은 지 나 나 까	14
해 방 의 첫 해 를 보 너 며	18
분	20
구 말 의 예 모	21

고 향 三四

第 II 部

勇躍의 季節 三九

나의 하루 三三

蒼穹 三三

봄을 그리는 마음 三六

春窮 二題 三六

가을 八 首 四〇

新 人 四三

돌아선 구대를 조상함 四四

누리에 향하여 四六

異邦의 始祖 四八

不 休 五一

第 III 部

獨步 秋夜 五五

잊어버린 노래를 찾기 위하여 五九

人生行路 六三

오직 이 미들만이 六六

叙事詩 〔晚 香〕 七

第一章	緒論	一
第二章	經濟學之概論	一〇
第三章	經濟學之方法	二〇
第四章	經濟學之原理	三〇
第五章	經濟學之應用	四〇
第六章	經濟學之結論	五〇

第 I 部

蟄 伏

빛을 짚이고 흐미를 잡어
오늘이 잊기를 기다리며 기다리며
어둠속에서 빛을 차지며
묵묵히 다만 묵묵히
忍辱과 밤으로 아포자긴 十年!

X

아아! 기다리던 으늘의 감격!
산과 새와 풀과 나무와 새와 버레가
모오루 새 포을듯 받기고 다정하여
며 이산과 나물쌔이 이다지도 신비로운 순장。

X

이 하늘이 한고작 높고
이 땅이 가지록 넓고
그리고 太陽이 이렇게도 아름답고
이 세계가 이따지도 위대한 줄이야
아아! 동무들아
이 순간 같이 뻗치게 느껴본적이 있는가。

X

흥분한 열정에 눈물이 어리우고
뛰어선 주먹이 가늘게 떨리며
심장이 터지도록 외치고 싶은 흥분
아아! 동무들아
우리에게는 또한번 끊어야 할 적자살이 남았구나

X

太陽을 못보던 어둠속 우리들의 會話가

빛을 받기며 땅우에 솟는다
동무들아
희망에 뛰는 가슴을 가만가만 탈래이며
험차고 목친한 적살을 大地가 울리도록 울기어보자。

心 火

벗아! 그대의 맑은 눈에
이슬이 맺혀 방울 방울
그 무슨 서름인가야

×

그대의 포운 눈썹
수줍이 어리어 깊고 깊어
그 무슨 서름인가야

×

그대의 맑은 입
말 없이도 내 가슴 울터네

진정이 임취인 탓이겠지야

×

소박한 나의 끝말은
그대를 위로 할줄 모르네
아! 이 붓을 쥐어 버릴가야

×

눈물이 질레 가슴에 스며들고
수줍으로해 소리없이 노래함네
소리없는 노래는 지가 아닐가야

피

찍은 저문 해

가뭇한 문화

가람 같이 흘러 흘러

×

화려한 제대

희미한 순간

비도록 탈탈 가이 없어

×

조선의 희 너

조선의 후 너

아! 가지록 아름다워

×

언제나 꽃고

영원히 자리

떠어던 앞발을 마음하며

×

고운 채이 걸터

불은 불히 살워

함도한 저해에 제불고저

노들강

가뭇한 옛날부터
하도한 전설을 질고
말없이 흐르는 노들강

×

근로하는 청년인상
꺼지지 않는 정열을 안고
영원히 젊은 노들강

×

바른 계상도 보았었고
원 역사도 읽었건만

이방곳 없는 노들강

×

누물과 기도 마시었고
지센밤 울음도 들었건만
한고작 태연한 노들강

×

남산을 가리키는 자유의 기
장안을 흐르는 해방의 노래
세련듯 침묵한 노들강

×

우러들이 떠미는 여자와 함께
영원한 청년 세월과 같이
묵묵히 흐르는 노들강

들으시나니까

무엇이라 외치는

임의 참 뜻

모르는 거리가 아니라

×

조국을 사랑하기야

민족을 아끼기야

해의 풍상 실은이요 또 무엇이

×

검던 머리 희친 술

아! 이제 모르오리까 모르오리까

눈물이 앞을 가리나이다

×

무엇이든 몸부림치는 하도한 거리

형제를 팔아먹던 자여 물러가라

그리고 삼천만이여 무엇이든

×

목메어 외치는 소리

찌 댕계 부르짖는 소리

임이여! 들으시나니까 들으시나니까?

×

민족을 팔아 배 불리던 자

동포를 짓밟고 지위를 자랑하던 무리

인제는 임의 성스런 이름까지 팔아

정제를 속이려 하고
죄들의 영광을 보충하려
또 다시 남의 혈관을 등에 대고。

하도 하도 놀리고 짓밟히며
백에 자포치도품 갈망하던
아아! 인민의 자유 인민의 권력。

어떤 무리단의 자유오리까
어떤 계급단의 권리오리까
임이여! 빠르게 보소서 보소서。

민주를 팔은 황금의 아지랑이
봉표를 짓밟은 지옥의 무지개

임의 이복을 팔은 기판의 주름

어지러운 이적들이
인민의 손피를부터 임의 귀를 가리려
임의 총명을 가리려 합니다。

노동자 봉탄 근로하는 하도한 세계
진정으로 갈망하고 외치는 소리
임이여! 들으시나니까 들으시나니까?

해방의 첫해를 보내며

(18)

一九四五年—나는 터가 되려오
새해—그대는 주추를 마련하오
쌀물동이를 조심스레 이논 마을 치며마냥
나는 그대의 주추를 받듯이 이으리다。

나는 해기를 낚을 어머니오
그대는 소담한 젖등을 아끼지마오
방실거리는 짓머이 무렵무렵 커갈 때
나는 물러가도 그대를 도와줄이 함포하오。

시향 무지개마냥 아름답던 나의 꿈
그달픈 몸부림으로써 틀이 잡히지 못하였소
제비 밧 같이 찬란한 그대의 희망
조심스레 걸어가는 발자욱 자유마다 틀이 터오。

(19)

그 날의 메모

진을들 한토루 샘스물
주르르 두들일상 맑기도하여
이리코 간살한 힘
불안해도 저을다 하네。

피가 향줄기 부들기
모이고 또 모여
시계가 되고 푸포를 이룩
한가함 울리울리 바다로 바다로。

호미를 들고 평이를 베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말물처럼 빠져을 해
비정한 눈물은 숨을 죽이네

말없이는 썩썩한 기스발 아래
기쁘도 없이 절은 무척
천동같이 외치는 아우성 소리
말린다 오직 새나라 새나라로—。

봄

수수삭. 올라피헤
 낮 따의 우름도 기인해,
 푸르러 가는 들 헤쳐,
 종아지는 『땀해!』
 어디선지
 불알이 피피 고요하다.

지내 인력에 추우를 들이친
 수양버들. 하늘저리고

금잔디 별관
 뽕루통한 덩들해 꽃
 뽕오리, 뽕오리
 마음 소년들의 나물바구니 한가하다.

밭 가는 젊음이,
 씨 뿌리는 아낙네,
 술 봄 따닥
 어이 그리 명랑한지

해방의 자유 근포와 창조
 아! 뼈근한 희망의 봄이여

고 향

발자취조차 조심스레
고요히 찾아오는 황혼처럼
머어먼 고향에 떠돌은 나그네 마음



이끼 낀 돌담에
태극기를 꽂고
빙그레 웃으시는 아버지

차림꾼에 의지하여
행길만 바라보시는 어머니도

피어나 흠이셨으리



이기를 푸른 날로 약속한채
그렇게 쫓달리는 살림살이에도
기다리지 않던 어버이 마음

오늘따라 하마 돌아올듯
아들을 그리시는 심정
내 어이 모르오리까?



구려나 다시 아뢰옵나니
어진 없이 가오리다
진실로 우리들의 기 날리는 구별



△
남은 일에 피로운 이쁨이어나
파도 소리 받기는 조개껍질마냥
머슴의 고향에 손근저리는 나그네 마음

勇躍의 節

제비가 오자

뒤 따라 물러오는 新綠!

조수와 같이 넘치고 넘쳐

하늘도 푸르러

물도 푸르러。

젊은이 가슴에 짓트려 있음

취한가지 욕망!

新綠과 같이 넘치고 넘쳐

搏도 거칠어

呼吸도 거칠어。

제비의 굿는 線!

空間에 明滅

제비의 차는물!!

浩浩 잔잔。

한 때의 靑春은

時間에 明滅

하긴만 靑春의 가는 걸

浩浩 洋洋。

生生한 첫여름

명랑한 季節

희광은 靑春

오오 휘어지는 두 주먹

나의 하루

— 조그마한 學院에서 —

해기에게만 찬밥을 주고

안해와 마주 앉아 밀거나 바라보는 아침!

朝飯도 못먹고 敎室에 들어서며

어느 아이가 授業料나 가져왔나?

은근히 눈치만 보는 쓰디쓴 心思!

『來日是 授業料를 가져오라』

이 말을 할가말가? 설레이는 感情을 아드득 깨물고

默然히 돌아서는 下學時間

X

默然히 돌아오는 나의 모양을

안쓰는듯 은근히 살피는 안해의 表情!

『저녁은 어떻게나?』

흔차림 같이 나의 주머니를 엿보는 구의 心思!

나는 또 默然히 돌아나와

시름없이 하늘만 쳐다보며.

清爽한 新綠은 하늘빛까지 푸르게 하였다

푸른 하늘에 솔개미 한마리

완만한 카아브를 그리며 하늘끝 저어쪽에 유유히 사라진다

가 없는 푸른 하늘에 마음껏 달리는 상상의 날개!

無生代의 岩層이 말하는 아득한 과거!

직어가는 태양이 빛과 열을 잃은 死骸가 되어

움지감도 없이 비참히 된 멀고 먼 未來를 상상할 때

한 世代에서 다른 世代에 넘어가는 百年 二百年

얼마나 끔찍하게 적고 적은 순간의 순간인가!

나는 이 世代의 災禍속에 웅감히 뛰어들어 희생된 人類를 생각하여 본다

그는 新世代의 岩層에 化石이 되어! 역사에 기록되어!

이 世代의 災禍와 苦難을 가만가만 소작시켰지

古世代의 岩層에 化石이 原始의 生물을 설명하듯이!

그날도 오늘같이 물 뿌탄듯 고요한 유월의 한낮이나 한일부지!



푸르죽은 녹음속에서 튀어나온 정쾌한 제비!

맑고 푸른 산뜻한 하늘에 직선을 긋고 지나 간다

종다리가 수직선을 긋고 푸른 브리 발에 떨어진다

뜨거운 氣層속에 明滅하는 R角!

형용할수도 없는 순간의 순간

그가 이 世代의 災禍를 소작기는 未來는 얼마나 지리한 순간일까?

봄을 그리는 마음

(86)

시간이 늦어져 전차를 탔사외다。
무심히 쳐다보니 『春のせがれ 三越』
손가락을 짚아 날자를 헤아려 보다가
나의 마음에 던지는 봄의 추파를 느꼈사외다。

공장에는 봄의 그림자도 없었사외다。
햇빛 못보는 공장안, 질척할듯한 고무의 냄새!
우울한 우리들의 얼굴빛, 우주제
명랑한 봄의 기분, 그윽한 봄의 향기 찾을길 없사외다。

봄의 꽃, 푸의 봄, 봄을 그리는 애타까운 마음!
고무신에서 꽃을 찾았사외다。
그러나 향기가 없사외다。
오직 우리들의 우울한 청춘을 아포사건 눈물의 자주일뿐이외다。
샘물과 새와 벌레와 바닷의 그윽한 소자김!
흙과 풀과 꽃과 나무의 구수한 냄새!
시인한 하늘, 맑은물, 웃듯한 산, 끝없는 물, 쨍쨍한 별, 시원한 공기!
사지를 죽 벗고 가슴을 펼친 헤치고 기운껏 디터마지고싶은 봄!
와 하루, 봄을, 봄을, 봄을, 애뜻이 그리웠사외다。

(87)

春 窮 二 題

其 一

진달래 꽃이 피고 지내스가 떠돌이 푸르렀소
 꽃이야 피나마나 떠돌이야 푸르나 마나
 내시름 없을진대 해탈스일이 있겠소마는
 오실 때니 오시노라 질비는 보슬보슬
 땅이 있어야 갈지를 앓소
 처앗이 있어야 심지를 앓소。

×

장남 제비 돌아오고 지내스가 글잔디 속살 나소
 제비야 오나마나 잔디야 째 트나 마나

대실음 없을진대 눈물질이 있겠소마는
 우실 때니 우시노라 두견새 소리소리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소
 이 처레를 떠나서 어찌나 가겠소。

其 二

봄 이슬에 돋는 짙은 살점죽도 하절마는
 나 많은 처녀라고 밧나물 캐리도 못잔다니
 누구일들 가고 실으리까마는
 풀주러 우는 어린동생들 어찌나 함리까。

×

은 누리에 봄이 왔으니
 대맘에도 봄이온줄 봄마음이 온줄!
 여보시오 떠돌 피리 불지도 마리오
 나물 바꾸니 차기도 전에 석양이 떨어져 저위가요。

가을 사람

(40)

희미한 등불 아래 묵연히 앉았으니
지는 잎이 창문을 스치며 — 바스락 —
그런 확실한 가을의 늑크었음。

그는 나를 불러 내고야 말았음。

눈썹 길에 가로 비친 갈매 그림자
가는 바람에 하느적거리며 — 스프롱 —
나는 가만가만 따라오는 그의 발자취를 들었음。

높고 맑은 하늘에는 서리수발만 어퍼였고
아득한 지평선 저어쪽 수풀우엔 짝각 발이 질러었음。

떨리 들 건너 포푸라 속이 잠든 마을
조으느듯 잠막이리는 두어개의 등불
가을 고요한 밤!

그는 평화를 잊어버린 환쪽의 아름다운 그림이었음。

(41)

新 人

가아를께 같은 제발!
빛조각 감옥 하오.

△

부들부들 빛 나기야.....
모름탈판 하겠소마는

△

모름탈의 앞길 찾았으니 기을적편
제발! 부그해질 앞날이 그 어떠하오.

二

우! 제 사람들아 떠날 봄

찾아 떠서 제일이 마음같은 꽃봉우리

△

잔잔한 이슬에 감을 켜 가리틀로
그윽한 향기에 젖을 가마를누다 하오.

△

이 무산히 떠러하였거니
희미했다 봉우리째 이슬막아 있겠소.

△

제발 같이 천만줄 전은 구름 정한 정하 휘어지고
제발 같이 지를누를 천만 구름 휘 불아지라도 부러리지오.

돌아선 그대를 조상함

열길 물속에 고기도 낚고
천길 높은 하늘 기러기도 쫓진마는
그대의 마음 어찌 그리 알질이 없었는지!

△

정열해 끓는 그대의 말!
완연해 맞은 살소리 같이
준제 빈틈 한바도 있었진마는!

△

같은 물은 마르면 밑땅이나 보이지
그대는 갔어도 그 마음 알질이 없네

그렇게 돌아설줄 알았으면 알았더라면!

△

땀땀기해 분하고 크이였기에 가없다지
피울을 분알에 두고 꺼꾸러진 런러어와 같은
가없는 인간이여! 비참한 해부자여!

우리애 향향애

(46)

어머니 서울에서 살피었고 그날까지
갖다준 나무술과 잠은 모든 아기들은
우리애 향향애 손을 들고 어머니를 노래합니다.

누엣누엣 곁은 진역병의 뱀은뱀아래
아기들의 마음다자한 노래가락이 떠올르거든
제발 제아침애 아기들의 기쁜 눈과 함께
어머니의 이름이 우리애 뱀날것을 기뻐하소서.

아기들의 절음이 바다의 끝과말해 잣드라도

어머니의 밤스한 손이 인도하시려니
어머를 잔들 일자한. 열눈을 잊으리까
우리애 향향애 손을 들고 어머니를 노래하오리다.

(47)

異邦의 始祖

고요히 나리는 눈!
이 스름 달빛이라
북오얀 첫빛 속에 깎이가는 北國의 밤!



가없는 별관!
가없는 적막!
머뭇터 잠박이는 등불!
옛날같이 아아득 하고



이 깊은 적막에 고요히 꺼와져

그대는 어머니 품에 가깝게 참드는 어린 아기 같이
하늘을 우러러 자르르 물감은 두 젊은이



모르랴고 짜들한 눈썹이
이마를 스치는 순간의 촉감!
그눈 원 몸을 부루루 떨며
두팔로 허공을 짊어진다。

오오 슬하!

조그마한 장아의 칼도 쫓겐 석류같이
붉고도 아름다운 너의 입술이
처음으로 나의 뺨을 스치던 순간을 느꼈구나



누마야!
북오얀 아지랑이 속에 희미한 달빛을 아로자기던

고향 南國의 불만을 못았겠다는
어른들 속은 알길이 없더라』

△

『그들은 아직도 고향을 못았은게지
너는 고향이 그렇지 않니?』

△

『고향은 별수 있니?
너하고 같이 와 있는데!』

△

『그게 말이야 어서 봄이 돌아 왔으면
저투루 땅이나 갈아보겠는데!』
이렇게 그들은 제록은 始祖를 준비한다。

—北國에서—

(50)
(84)

不 休

피와 땀으로 아로자긴 先輩들의 자취
흙밭로 밟고짓는 벗님네도 있소
흙은 비바람에 젖기려니
땅속에 스며든 피와 기리 빛날것을
탄화여 무엇하오。

복떨어 연연한 재깻
지슬러 깔고 앉은 先輩도 있는당하오
참된 삶을 따음한 짚이라던
무뎀지 짐을 질러

(51)
(85)

천만우미 위문아서라도 푸르려질것 아니요

(18)

(52)

第 Ⅲ 部

獨步秋夜

(新建設事件이被檢된 등우들의게)

—
이즈러진 초생달은 鷹峰山머리에 환남어 잠기고
기우러진 은하는 白雲臺에 한글을 머무렸소.
맑고 높은 하늘을 우러러 상상의 날개를 가없이 펴 볼때
서리를 재촉하는 귀뚜라미 울음에 받은 가지록 적막하오.

—
기러기는 은하를 따라 南으로 가없이 울어 예고
나의 맑은 南朝鮮(全州)에 적막한 빛들을 더듬어 지를하오.
『제주든 불전마는 뜻을 한번 못펴두나』는 杜少陵의 관직이오.
詩人 文士의 쓸쓸한 모양 예! 나 이제나 다름이 없소.

세상이 참마하니 알아준다 한말들 없든듯 내어이 모르겠소
내 열갈만 칼칼히하면 용용한 가람이 내내 흘러 끝임 없음을 부
러하리 있겠소

三

내남죽 내로파하니 凡夫란 따루 있겠소 는
情趣도 모르면서 詩를 쓴다는 벗님네야 凡夫밖엔 무엇이겠소
속보담 文名을 고임도 하도할사 들도 쫓이냥 하오
하나 마음속 그림을 볼줄 알고 소리 없는 노래를 들을줄 아는
나는 그런 자랄을 고이오
어름을 아끼는 때암이 노래 아름다운이야 일터무삼 하겠소마는
서리찬뒤 자취를 감추더니 아름답던 노래도 찾을 길 없구료

四

언덕에 없이 다오른냥 매 있음을 모르는 벗님네도 있소
매에 올라서도 오히려 하글을 우러러는 先輩들 미칠갈 바이 없오

그레도 나는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느릿한 걸음으로 먼 길을 마
음하오

잊어버린 노래를 찾기 위하여

I
잊어버린 노래!

당신의 꿈을 떠나는 해가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평화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II

잊어버린 노래를 구이 잔직하고 떠난 당신의 해기는

별이 활자 거리에 응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그만 잊어버렸습니까

노래를 잊어버린 당신의 해기는 배거리해 서서

지나는 사람마다 부짚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도 없이 뿌리치고 지나갑니다

가장 바쁘듯이 생경하게 가버립니다

III

황혼이 되어도 노래를 찾지 못한 당신의 해기는

해라져 말버둥 치며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여! 놀라지 마세요

배거리 배거리를 지날 때마다

은 해기들은 나보고 노래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잊어버린 노래를 찾기 위하여

생경히 뿌리치고 지나쳤습니다

IV

해는 어느덧 서쪽 하늘에 기울었습니다

더욱 해라져 미칠듯 거리를 헤매이다가

마주오는 사람의 이마를 만고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앗! 소리 치며 바라보니 뜻밖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데저트에서 나뭇고 노래를 찾은이였습니다
서로 손잡아 이르킬 그때야 꼭 같은 노래를 찾는줄을
그래서 우리는 험적 으스스하게 손을 맞잡고
잊은 노래를 찾으려고 다시금 발을 옮겼습니다

五

그런데 어머니여! 웃으실소져
길거리 길거리마다 이마 받은 사람, 손잡은 사람!
나의 노래를 빼앗은들 알았던 거리의 많은 사람!
그들도 우리와 다같은 노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한떼가 되자
거리의 사람은 트물어졌습니다
그가운데 어머니! 그러나 간사해 보이는 여인이 지나갑니다
아! 그런데 이찌 뜻밖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우리들이 잊어버린 노래를 부르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소리를 치며 바라갔습니다
우리들의 노래를 찾기 위하여

六

그러나 우리들의 노래를 찾으려고 그 여인을 부딪았을 때는
행은 어찌지 지고 우리는 캄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암흑과 혼란 가운데서 노래를 찾습니다
어머니지여! 기뻐하소서
이 밤만 지나고 저날의 아침해가 우리를 명랑히 비칠 때에는
해기들의 웅장한 노래소리가 온 세계를 샅샅이 흔들것입니다

— 끝 —

人生行路

(62)

①
時間이여! 당신의 젊음은 아득한 永遠이외다。
空閒이여! 당신의 물은 가뭇한 無限이외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해기는 하도한 無窮이외다。

②
당신들이 꿈꾸는 것을 타지 해기들은 살구버니 기어나왔습니다。
다스한 물들에게는 아름다운 꽃병들로 장식한 크다란門이 있었습니다。
해기들은 저를 저 안고 들어섰습니다。
확장한 해기들과 알뜰한 꽃향기에 황혼 감였습니다。
많은 해기들은 제각기 꽃을 따라 잡니다。

새를 따라잡니다. 또 나비를 따라잡니다。

③
해는 하늘 한가운데 있습니다。
물은 끝이없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해기들은 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기들은 잡자기 외를습니다。
알지못할 不安이 해기들의 가슴에 스며듭니다。
해기들은 이틀해져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길은 천가닥 만가닥입니다。
어느길로 가면 나가는 門이 있을는지?
자방을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
네 하나 없는 냇이나 냇은 들입니다。

④
해기들은 생각하였습니다。

(63)

하늘과 땅이 맞닿은 地平線 저이쪽에는 확실히 나가는 門이 있는
데라고 그래서 自信있게 하는 음쳤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하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해기들은 아직도 이르지 못하였었습니다。

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서 달이 앉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서 구달도 졌습니다。

또 같은 곳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그해도 숨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해기들은 그해와 달이 떨어지는 地平線에 이르지 못하였었습니다。

그 地平線은 가도 가도 같은 距離의 눈앞에 있습니다。

⑥

해와 달은 수없이 쫓고 또 졌습니다。

해기들은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地平線을 위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확실히 이 물을 벗어나서 나가는 門이 있을것만 같습니다。

이 믿음의 해기들의 지친 다리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줍니다。

이 믿음만을 가지고 가없는 별판을 헤쳐다가 당신들의 품에 돌아
갈 해기들이외다。

⑦

時間이여 당신의 젊음은 아득한 永遠이외다。

空間이여 당신의 품은 가뭇한 無限이외다。

그러하여 당신들의 해기는 하도한 無窮이외다。

—(於鷲峰山下)—

오직 이 믿음만이

1
오리그리하!

당신의 아기가 아직도 어렸을 때에는
하루엔 바다가해 나가서 모래성을 쌓다가 쌓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틀에 쌓은 보리스코우에 등굴면서
하늘에 풍성한 별들을 헤이다가 헤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리그리하!

이것이 좋다가 달았거나 헤이다가 잠들었거나
당신이나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나 나무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오직 이리 한기롭게 살아있으면 지냈었습니다



오리그리하!

아기들은 오직 한기 이같이 자유의 기쁨을 영원히 갖지 못했을까?
당신은 당신의 아기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이 한 믿음만큼 헤이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수천만년 또는 삼이로 마이오는 수천만년!
오리그리하 당신을 믿었습니까 헤이하지 않았습니까?
아기들은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게 너무나 지냈습니까



오리그리하 보리께, 생각하니 그때나 아름답습니다

그때 바다가해서 쌓던 모래성은 하나의 동등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코우에 등굴면서 헤이던 별들은 오직 한기 없어 사라
질 무지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쌓였던 모래성도 무너지고 하이던 별들도 사라
졌습니다.

오직 남은것은 자나온 물결과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

그때엔 지극히 고이지는 당신의 품속에서 공중을 향하여 나는 파
랑새처럼 뛰어나와

원하루 바다가 모래밭에서 뛰고 춤추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때 어린 날이 아득히 바라보던 바다의 수평선 저어쪽에는

오직 평화의 물세배가 은빛 나래로 춤을 추며 사랑의 노래를 부
르고 있었었습니다.

이것이 하루바삐 따뜻한 당신의 품을 떠나는 크나란 유희이 되었습니다.

III

어머니여!

사랑하는 아기가 장차 당신의 품을 떠나려 할 때에

아직도 젊으신 당신의 얼굴에는 조그마한 걱정의 빛이 어둠되었습니다.
그것은 뜻도 없고 기도 없이 한바다에 떠나가려는 아기의 길을
걱정함이었겠지요.

크나란 유희에 끌린 당신의 아기는 그것을 몰론배 아니었다는 그
레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아기의 가려하는 길을 참아 따지 못하여
아기가 쌓은 바다가의 모래성을 의지하여 수정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점점 멀어가는 아기의 조그마한 배를 향하여 원수진을 두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철 모르는 당신의 아기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조
그마한 서러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화의 물세배가 은빛 나래로 춤을 추며 사랑의 노래를 불려대는
그곳만이 보이었습니다.



어머니지어!

뜻도 없고 키도 없이 한바다에 떠온 아기의 배가
 비록 바람이 없다하든들 어찌 안전기를 따라졌습니까?
 당신의 아기가 정성껏생은 모래성과 함께 당신이 두루지는 환주전
 이 보이지 않음 때에는 아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자나온 물
 질과 캄캄한 이물은 아기의 배를 삼키려 합니다

四

어머니지어!

포리켜 바라보니 따뜻하던 당신의 품은 아득한 옛날속에 아른거리고
 하늘을 우러르니 총총하던 별들도 간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빛 내려로 춤을 추는 평화의 물제비도 찾을길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것을 잃어 버리고 캄캄한 이물속에 헤매이던 당신의
 아기는 오직 『빛』과 『바람』이 제질을 찾기에 어지없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지어 안심하소서

당신의 아기는 아직까지도 다짐하지는 않습니다
 『빛』과 『바람』의 제질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노획하였습니다
 아기의 이같은 노획은 반드시 쫓겨지 않고 보람이 있으리라 굳게굳
 게 믿습니다
 이 믿을만이 오직 이 믿을만이 아기에게 크나큰 힘과 뜨거운 용기를
 믿어줍니다

晚 香 叙事詩

晚 香 — 人生의 甬가에 甬지를 드리우고 서서
『무엇일까』

잡힐듯 잡힐듯 잡히지 않은것이 무엇일까

이곳에 물은 얼마나 깊을까

이물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것일까

이 甬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영원한 淸춘인 세월 그도 아직 대답을 못하니 이곳은 영원히 풀수 없

는 주수꺼끼가 보고말것인가 이甬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볼수는 없을까』

女 子 — 영원한 淸춘 歲月, 理想 —

『너이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호기심에 가득찬 얼굴 빛은 무엇을 찾음이나

왜? 그 별같은 눈들만 깜박이고 있느냐

꽃을 줘서 입에 대고 만지작거리기만 하느냐

아이들아 대답을 못하겠느냐?』

晚 香

『어머니 당질은 인자 하십니다

아이들은 이 甬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못전디게 증음하십니다

당질은 반드시 알으실것입니다

애기들을 위하여 가르쳐 주소서』

女 人

『아이들아 —

이 얇은 甬에 담긴 호기심은 어떤애기들에게 맡겨두고 저깊은바다에

아름다운 眞珠를 캐어볼 용기는 없느냐

이 누리에 제일 크고 아름다운 보배를 캐어볼 용기는 없느냐』

晚 香

『어려니 그 바다 밑에 진주는 꼭 있었습니까
누가 캐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들도 뱀수가 있었습니까?』

女 人

『나는 지나간 몇천만년 내 눈으로 보았었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믿어도 좋다
그 바다 밑에 진주를 캐자같은 함도 많다
드르타레스 플라톤 아티스트릴레스도 캐었었다
예수도 석가도 몽자도 노자도 캐었었다
칸토도 헤겔도 맑스도 캐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만족한 진주는 아니었었다
나의 만족할 진주는 아직도 바다 밑에 확실히 있다』

너희들도 진정한 노력만 있다면 뱀수 있을것이다
만족할 최후의 진주는 못캐다 하더라도
모담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뱀수는 있을것이다』

晚 香

『우리들은 당신이 만족할 최후의 진주를 뱀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들은 당신의 만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뱀수 없다면 우리에게서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다면 노력도 없을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최후의 진주를 뱀수는 없겠습니까』

女 人

『아희들아 너희들도 아마 최후의 진주를 뱀수는 없겠지
그것을 캐다면 나의 칭찬은 영원히 떠나야 할터이니까
지나간 몇천만년 영원을 자해하던 나의 칭찬은 시들어져야 할터이니까
너희들이 만일 모담 크고 아름다운진주를 캐다하더라도 나는 또한 만족』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하여 앞으로 타어오는 몇천만년 영원한 청춘을 자랑할것이다』

晚 香

『인자하진 어머니 당신은 너무나 유점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그최후의 진주를 영원히 캐지 못할것입니다

영원히 캐줄 없다면 아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밑에 들어가 보려고도 하지않을것입니다

그 다면 人生이란 희망이 없고 노력이 없을것입니다

값이 없고 빛이 없는 적당한 삶이겠지요

그래도 당신은 영원한 청춘을 자랑하여야 하겠습니까』

女 人

『그러니까 더욱 영원한 청춘을 자랑하는것이다

누가 한번 최후의 진주를 캐었다면

그러고 캐어볼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면

그때야 말로 희망이 없고 노력이 없을것이다

값이 없고 빛이 없을것이다

그때는 적당한 삶이 아니오 안전환 죽음일것이다

人生으로서의 마지막 날일것이다

그러니까 人生이란 보담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캐기 위하여

영원히 희망하고 영원히 노력할것뿐이다

그러하여 보담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

또 그보담 크고 아름다운 또 그보담 —

여기에만 빛이 있고 값이 있는것이다

영원한 희망이 있고 노력이 있는것이다

영원한 人生이 있고 삶이 있는것이다

그러하여 나는 영원한 청춘을 자랑할것이다

힘으로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젊음을 자랑할것이다

너희들도 빛이 있고 값이 있게 살려거든

보담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캐기 위하여
 용감하게 저바다속에 뛰어들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그보담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희망하고
 그희망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晚 齋

『어머니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이우울도록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을 걱정하셨지요
 우리들은 잘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잘길이란 다시 없었습니다
 바다속으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것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할일이란 진주를 캐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진주란 바다에 밖에 없는것입니다
 땅에도 강에도 산에도 하늘에도 없는것입니다』

바다탈고는 진주를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女 人

『저어 산에 높이높이 오르는 길도 있다
 너희들은 인제 낮은 언덕이나 얇은 뚝가에서
 하늘에 뚝뚝한 별들을 헤이든것은 해기들에게 맡겨도 좋다
 그것은 어린해기들의 꿈이오 동정이오 수수께끼다
 너희들은 인제 그 수수께끼를 풀어볼 때가되었다
 저 산에 높이올라 그 별들을 따볼 용기를 내일 때가 되었다
 그 별을 따는것은 진주를 캐는것과 같이 귀하고 아름답다』

晚 齋

『그별을 어떻게 따수가 있겠습니까
 별을 따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별을 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별을 따 사람은 누구입니까』

女人

『별을 만 사람은 하도 많다
앞으로 딸 사람도 수없이 많을것이다
공연한 의심을 빼놓지 말아라
희망이 있는 곳에 반드시 노력이 있을것이다
노력이 있는 곳에 반드시 거름이 있을것이다』

晚 香

『그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별을 만 사람은 누구일나까
앞으로 딸 사람은 누구일나까』

女人

『별을 만 사람은 하도 많으니 어떻게 헤이겠느냐
너희들은 이해해 두자미 백락천 원미지를 알겠고라』

베오쿠리도스 마아지루 조오사 단테 뭇작치오

빌룬 뻬이론 폰트레르 피에티 하이데

쉴트트먼 카아펜타 타고아 나이두

렉스피어 라지이누 하포르트먼

싱그 머나드루 마이테링크 구헤고리

셀반데스 빨부스 슈타 유고 말작크 프랏상 푸쥬킹 고고리 르브

제레프 머스터얏스키 룰스토이 체흠 팔키 싱그헤아 쏘타 로멘로

랑 후란스 이바니에스 만고치오 스토우 메도벤 슈벨트 와구네루 뭇슈

한체리고 테오날드 다빈치 미카판제로 라파에루 아마잔 빌레 그

리고 라오콩 彫刻像의 作者들

이들은 모두 山에 높이 올라 별들을 만 사람이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이 있다

너희들도 노력만 한다면 누구든지 딸수 있을것이다』

晚 香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제일 크고 아름다운 별을 뺏습니까
누가 당신의 만족할 별을 뺏습니까
당신이 만족할 별을 뺏 사람은 누구입니까?』

女人

『나에게 만족이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만족하는 말이 듣는 말이오 죽는 말이다
영원한 청춘을 자랑하는 나에게 어찌 만족이 있겠느냐
보담 크고 아름다운 별이 있을뿐이다』

晚香

『보담 크고 아름다운 별을 뺏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제일 크고 아름다운 별을 뺏습니까』

女人

『저 산에 제일 높으게 오른 사람이 보담 크고 아름다운 별을 뺏 것이다
높이 오를수록 보담 크고 아름다운 별을 뺏 것이다』

晚香

『누가 제일 높으게 올랐습니까
보담 높으게 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女人

『그것은 누구보담도 높으게 오르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남이 오른데까지 미치지 못하면 그 높이를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대나 너희들이나 맛찬가지다
그것을 살려면 그를 보담 더 높이 올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만 人生의 向上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晚香

『그러면 우리들은 저산에 올라야 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높이 올라섰는가를 알기 위하여
그리고 보담 크고 아름다운 별을 따기 위하여
이제부터 저 산에 올라야 하겠습니까』

晚 香

『아아! 지엄한 아침이다
아름다운 아침이다
깜깜한 밤은 지나갔다
밝은 빛은 나의 앞길을 인도할것이다
이만큼 높이 올랐으니 조금 쉬어가자
마음도 시원하고眼界도 훨씬 넓어졌다』

晉 年一名 晉

『나는 당신에게 명예를 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은 깜깜한 밤을 헤치고 용감하게도 높이 올랐습니다
저 산길을 내려다 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少年들 아직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제일 먼저 제일 높으게 올랐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성공입니다』

당신은 이 명예의 花冠을 쓰셔도 좋습니다』

處 女一名 樂

『나는 당신에게 연애와 향락을 받치러 왔습니다
화관을 쓰신 당신은 王子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쓰신이상 이 花環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새들은 당신을 위하여 노래할것이고
풀과 나무와 꽃들은 당신을 위하여 춤을 출것입니다
그러하여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실것입니다』

晚 香

『그러나 아직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자랑할 때도 못되었습니다
성공과 명예와 만족이란 이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하고 노력하는 가운데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명예란 자랑할것도 만족할것도 향락할것도 아닙니다』

희망과 노력이 끝난 다음에 알아질것입니다
 人生의 삼이란 희망과 노력에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희망과 노력을 없이 함에는 오직 죽음이 있을뿐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희망하고 노력할것입니다
 그리하여 보답 크고 아름다운 별을 딸것입니다』

女人

『그 화관을 쓰고 화환을 안는것이 누구냐
 너는 별서 늙으려느냐 죽으려느냐
 희망을 버리고 노력을 타 버려느냐
 보답 크고 아름다운 별을 따려는 약속은 어찌 하였느냐
 아래판을 보지 말고 머리를 틀어 산위를 쳐다보아라』

X

晩香

『아! 영원히 젊으시고 영원히 젊음을 모르는 어머니지여!』

당신의 예기는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나의 곁에 오소서 나의 손을 이끌어주소서
 인자하신 당신의 얼굴만이라도 보여주소서』

女人

『너머 곱히 곱지 말고 머리를 숙여 저 아래를 내려다 보아라
 아직도 많은 少年들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
 青年과 處女의 앞에서 화관을 쓰고 화환을 안고
 출후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아직 부끄럽히 오르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너머 곱하게 곱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부끄럽히 오를것이다』

晩香

『어머니 우리들은 저들을 내려다 보며 이자리에서 만족하여야겠습
 니까 어찌하여 아래를 보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씨는 헤아릴길 없습니다』

위를 쳐다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죽이란 영원히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나지어

우리들은 밭을 나려다 보며 웃어야 하겠습니까

위를 쳐다보며 울어야겠습니까』

女人

『우리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여야 한다

피를 흘리며 눈물을 삼키고 기어올라야 한다

저 바위들을 보아라

먼저 슬픈 사람들의 발자국 자들마다 피 흔적이 아니라

별을 따러던 누구나 피를 흘려야 한다

피를 흘리지 않고 별을 딴 누가 있느냐

밭은 아플고 몹시 초조하여 나 땅에 가까이 매는 곱어 보며 웃

기도하여야 한다

그러하여 원기를 회복하자면 다시 위를 쳐다보며 피땀은 밭을 음
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결음은 터뜨리는구나 끈질줄은 없어야 할 것이다

쳐다만 보고 초조히 울기만 한다가는 나 땅하여 지꾸러질 것이다

그러나 곱어만 보고 웃기만 한다가는 마침내 오르지 못할 것이다』

晩 齋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웃기도 울기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하여 끈질줄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모담 높으게 오르기 위하여

모담 크고 아름다운 별을 따기 위하여

천천히 그러나 무르르히 올라야 하겠습니까

女人

『그렇다 / 천천히 그러나 무르르히

集詩枝芽朴

「火心」



版社學文司午

所實發總
地路四三一町鐵通市金岡

社友文

號十門化先購書私

刷刷五五月三年六國九一
行發日十月三年六國九一
部0000五紙張

價定



著者 朴 芽 枝
發行人 洪 九
發行所 午 司 文 學 社
印刷人 劉 秀 英 社 印 刷 所
國 領

끼질줄모르는 바람이있고
관찰줄 모르는 노력이 있을뿐이다
여기에만 영원한 젊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빛이 있는것이다
우 사람이 되어서 藝術이 높아질것이다
우 사람은 은 우리들의 목숨과 같이 할것이다

— 丙子 初春 於 鷲峰山下 —

꺼칠출모르는 바람이있고
 끈칠출 모르는 노력이 있을뿐이다
 여기에만 영원한 젊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빛이 있는것이다
 人生이 짧아지고 藝術이 높아질것이다
 우리들의 바람과 노력은 우리들의 무솔과 같이 할것이다』
 — 丙子 初春 於 麓 山 下 —

朴芽枝集
 洪秀英
 友文社

集詩枝芽朴

「火心」



版社學文리우

所賣發總
 社友文
 號十門化光國書私

印刷日五月三年六四九一
 行發日十月三年六四九一
 郵〇〇〇三郵劵
 圖五拾價定
 著者 朴芽枝
 發行人 洪秀英
 發行所 友文社
 印刷人 劉英社印刷所
 總發所 友文社
 地址 光化門外十號